

G8 정상회담과 표준화



김 은 정
 기술규제대응팀 전문위원
 02-509-7257
 ej1448@mcie.go.kr

2007년 6월 6일부터 8일까지 독일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성장과 의무”이다. 에너지 효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또한 국제표준화회의의 주제가기도 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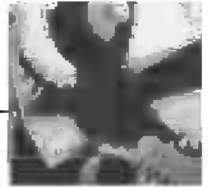
2007년 6월 7일 정상회담 선언에서 각국 정상들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표준을 ILO와 OECD 지침과 같은 수준으로 향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지침. 특히 UN의 Global Compact 준수를 촉구하였다.

각국 정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민간기업의 투명성 향상을 요구할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정의 및 원칙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강조하고, OECD는 UN 및 ILO와 협력하여 가장 타당하고 명확한 표준을 좀 더 보기 쉽고 명확하게 마련하라고 결정하였다.

2008년 10월 간행을 목적으로 개발 중인 사회적 책임에 관한 표준인 ISO 26000은 이번 정상선언에서도 골격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침 표준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용어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고, 가치를 더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이 정상회담의 주제가 된 지 오래되었지만, 기후변화특별한주의를 쏟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정상선언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이는 것만이 지구 온난화를 막고 에너지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타당하고 비



용이적게드는 길이라고 선언하였다.

에너지효율에 관한 국제 협력을 증진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각국의 정상들도 강조한 사실이며, 사실 SO는 최근 표준화에 대한 주제를 세우고 국제 에너지기구(IEA)와의 협력을 모색하였다.

에너지 집약 경제를 줄이기 위하여 각국 정상들은 에너지 효율에 관한 최소한의 표준, 건전하고야심찬 에너지 효율 표시 및 공공 구매 지침을 비롯한 절절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선언하였다.

특히 건물과 유통 분야에서 전력 생산을 높여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었으며,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소비를 낮춤으로써 개선되었다. 이 때 유럽의 표준은 이런

주제로 표준을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에 있다. 자체 한 표준은 CEN/CENELEC 에너지 관리 분야 포럼에서 볼 수 있다.

또 각국 정상은 바이오 연료 표준 개발에 협력하기로 서약하였다.

정상 선언은 에너지 효율과 기후 변화 논의에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국가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이는 국제 표준의 영역을 개발도상국과 부상국에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된다.

DIN에서 에너지 효율 및 관리에 관한 국제 표준 및 유럽 표준을 환경 보호 표준 위원회(NAGUS) 원칙의 AA9이 참여하여 수행 중이었다.

출처: DIN 홈페이지
기술 표준 2007. 8

